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있는 연예인. 언제까지 그들을 포교의 시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연예인들에 대한 포교는 '효과'의 측면에서 어느 계층보다 폭발력을 갖는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그 영향력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N세대 스타들이 손목에 착용한 단추는 포교사이상의 포교효과를 내기도 한다. 불교계는 연예인들을 어떻게 포교하고 있으며 불자연예인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대중문화 포교의 현주소다.

‘스타’를 포교사로 발굴·지원 시급

- 글 쓰는 순서 ●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서명
-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 3. 일터불심, 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 13. 기자방담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됨에 따라 스타들을 활용한 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 대중문화 스타들에 대한 포교와 불자스타를 활용한 포교는 포교인프라의 부재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도 포교의 큰 자산이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불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왼쪽부터 김민중 박세리 서민정 홍경민 박지성.

■ 인기'는 포교의 자산
현재 불교계에서 연예인을 활용해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는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홍국),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회장 장미화)가 대표적이다. 불자가수를 활용한 포교집단의 모체인 대한불자가수회는 '음성포교를 통한 부처님 정법 전달'이란 목표로 1991년 창단됐다. 현 회원수는 200명. 월 2회 군부대, 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음성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포교성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 불자가수, 탤런트, 연극인, 체육인 등 비교적 전방위적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값에 산사음악회 같은 행사에 공연해 줄 것을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난감해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개신교의 경우, '크리스찬연예인공통체'가 연예인 선교의 대표적 단체다. 이 단체의 경우 매월 2회 서울 대학로 및 지하철역 등을 무대로 콘서트를 연다. 공연 후 가수, 탤런트들의 간증을 통해 교회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선교해 일반인들의 심리적 거부 반응을 최소화한다.

을 쉽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각 연예단체간의 이권을 놓고 분산된 힘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직장·직능단체와 함께 법회를 열어 음성포교를 펼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전국에 분포한 직장·직능 단체는 450여 곳. 공무원, 철도인, 의료인, 교정인, 교사, 경찰, 운전기사, 산악인, 금융인 등 분야별 연합단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그 어느 영역 보다 큰 포

우의 식으로 포교에 응용하는 것이다. 파라마이언캠프 또는 요즘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템플스테이 등 불교관련 단체들의 행사 때 인기 불자 연예인들이 함께 참석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종단의 정책 및 예산안 자체화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활동 중인 불교연예단체들의 월 회비는 1인당 약 5만원. 이 정도의 재정상태로는 질 높은 포교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불자가수회 김홍국 회장은 "유명 불자가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불자가수들은 생계유지도 힘들다"며 "밤 무대, 회갑연 등지를 돌며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일선포교사 역할과 무료공연 등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종단의 재정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포교는 0점 수준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포교도 전무한 상태다. 2003년부터 불자 체육인들이 뭉쳐 스포츠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체육인연합회(회장)를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창설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불자 스포츠인들의 유명세를 빌어 불교를 알리려고 하는 편승적인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불교계가 지금까지 스포츠 포교영역에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개신교는 1977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스포츠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 종합학교인 나

으로 채택된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현재 167개국에 보급되어 있어 태권도를 통한 포교시장은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계가 스포츠 포교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해 부실하고 있는 가운데 △삼단이나 대불련에 스포츠 서포터스 개설 △전강강화 및 체조 교실 운영 △재능 있는 무명 불자 선수 발굴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개신교, 전세계 태권도 선교 '호응'

특히 개신교 종합학교인 나사렛대학교 태권도선교학부는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개신교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포교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태권도선교협회 문대성 이사는 "유럽, 동남아, 미주 등을 비롯한 세계 40여 나라에 100여명의 태권도 선교사들이 활동 중이며 10년 간 태권도 선교로 전도된 외국인은 약 5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에게 태권도 선교는 엄한 정신교육을 통해 제자후인이 용이하다는 점과 일반인은 물론 왕실, 공공기관 등 상류층과의 접촉도 용이하며 "유명 불자가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불자가수들은 생계유지도 힘들다"며 "밤 무대, 회갑연 등지를 돌며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일선포교사 역할과 무료공연 등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종단의 재정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터란 대불련 학생들이 선수단 환영 행사, 경기장 응원, 전화 안내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민간의 사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개신교의 'JESUS LOVES YOU' 처럼 불교도 'WE LOVE YOU'를 주제로 대형 카드 선택을 연출해 관중의 주목을 끄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일반인들도 종교적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포교할 수 있는 건강강화 및 체조교실 생활무용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교실을 여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일부 포교사들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메카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교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잠재 불자들을 위한 포교 전략으로 대중적인 스포츠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병철 기자

무관심·재정난으로 관련단체 활동 부진 직장·직능단체와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

■ 뜻만 모으면 할일은 많다
전문가들은 연예인 스타를 활용한 포교 활성화 방안으로 △N세대 불자스타 발굴 △직장·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불자 연예인과 종합학교와의 팬클럽 형식의 자매결연 △종단의 예산지원 정비와 △DMB활용 등을 제안한다.
4050세대에 편중된 불자 연예인들의 바통을 이를 간판 N세대 불자 연예인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가수 김민중처럼 만자(만) 목적지를 착용하고 자신 있게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층 연예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대형연예기획사처럼 영향력있는 불교계 연예포교단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장미화 회장은 "대형연예기획사같이 영향력 있고 제대로 된 연예포교단체가 있다면 N세대 연예인

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불교는 특별한 사람만 믿는 종교'라는 생각을 가진 요즘 청소년들. 이들을 자연스럽게 불교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서울 명성여중 권진영 교장은 "인기 스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공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팬클럽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고 피력한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을 학교자원에서 불자 연예인과 팬클럽 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거부감 없이 포교를 하자는 전략이다. 이동전화와 '손 안의 TV'라 불리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바로 수험생들에게 인기 스타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따

“연예인 포교사 육성·관리해야”

가수 겸 포교사 남강수씨 인터뷰
"불자연예인도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본격적으로 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대한불자가수회에서 활동 중인 원로가수 겸 포교사 남강수씨. 남씨처럼 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는 대한

불자가수회 회원은 김활선, 송춘희씨를 포함해 20여명. 남강수씨는 현재 수요 일마다 경찰청 불자회에 나가 법문도 하고 찬불가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범사제. 하지만 '연예인 포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재능과 끼를 겸비한 포교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남씨는 "연예인들 스스로 포교 역량을 기르고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연예인은 곧 포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적절한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재약산 表忠寺 건강 템플스테이

신라 진덕여왕 8년 원효대사께서 산문을 연 전통사찰 밀양 재약산 표충사에서 건강 템플스테이를 상설 운영합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장작불을 지피는 전통 은달방과 음이온이 풍부한 10여미터 폭포아래 계곡 참선 체험, 입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께서 직접 승병을 훈련하던 사자평 담보, 1000미터 고지에 위치한 12만평의 광활한 고산 습지대 생태계 탐방 등의 표충사만이 가지는 자연과 불교의 색다른 체험이 세파에 지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연 속에서 건강한 참 나를 찾아, 스스로의 삶을 진실 되게 바꾸어 가고 싶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일정	※ 둘째, 넷째 주말 상시 운영(1박2일) ※ 첫째, 셋째 주말 10명 이상 신청시 운영 ※ 10명 이상 단체는 상시 운영 가능	주요 체험 프로그램	
참가대상	일반, 청소년, 어린이 누구나 가능	1박 2일	2박 3일
참가비용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	- 사찰예절 - 참선 - 108배 - 포행(탑돌이) - 선체조 - 발우공양 - 폭포 아래 계곡 참선 - 승병훈련지담보 - 고산습지탐방 - 주지스님 헌담	- 사찰예절 - 참선 - 108배 - 포행(탑돌이) - 선체조 - 불무도 - 발우공양 - 약초농장체험 - 폭포 아래 계곡 참선 - 승병훈련지담보 - 고산습지탐방 - 주지스님 헌담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모자, 등산화(운동화) ※ 수험복은 지급됩니다.		
접수방법	표충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pyochungsa.or.kr)		
참가비송금계좌	농협 811079-51-011960 예금주: 표충사		
연락처	055)352-1070, 1150, 4115		

대한불교 조계종 15교구 재약산 표충사 주지 야산 청운 합장
주소: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번지 전화: 055)352-1070 / 팩스: 055)352-1836

시조시장경 時調詩藏經

한국문학사상 최초로 불경을 시조시화한
경암 김준현 스님

시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가르침 등을 함축적이면서도 운율이 살아 있는 시조시로 되살려내 누구나 쉽게 읽고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했다.

부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아니해도 보살이 간생(間生)해서 불법을 새롭게 흥포한다는 말씀이 경전에 있다. 이것은 보살의 시대적인 원력을 말씀하신 것이다. 경암스님은 이 시대의 한 인간, 한 사문(沙門)으로서 보살의 원력으로 『시조시장경』을 집필한 것이다.
- 이두스님(관음사조실·시인)

※ 전국 유명서점 판매 중

경암스님 월하(月河)스님을 은사로, 태허(太虛)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후 고산사 금강암 보덕사 요각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7년 법화유치원을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17년간 불입종 총무원장으로 봉무에 임하고 있다.

【신국판 | 양장본 | 340쪽 | 값 20,000】

어서아문 서울시 중구 청운동 54번지 | 구입문의: 02)2004-8220